

통일중공업 노동조합¹⁾ 관련자 집담 1차 구술

1. 구술자: 류해춘, 유수중, 임수관, 황선엽
2. 면담자: 박보영
3. 촬영자: 권용협
4. 구술일자: 2012년 6월 25일
5. 구술장소: 경남 창원시 의창구 풍원정밀
6. 구술분량: 07분 47초 / 일부 공개
7. 주요내용: 13대 총선 당선 전후 통일중공업 노조 지원활동

류해춘 : 저 같은 경우는 팔십칠(87)년 이(2)월 달 해고됐으니까, (병역)특례 중에 해고 됐으니까 해고되고 그때 이제 문성현²⁾씨하고 같이 이제 부산으로 갔어요. 부민동에. 거 돼지국밥집 많고 그랬어요. 부민동 변호사 사무실에 두 분 변호사님, 문 변호사님³⁾하고 이제 같이 공동 사무실 하고 그때 처음 가서 봤죠, 거기서. 봤는데 첫 인상은 그 당시 우리가 워낙 서민으로 살았으니까. 명색이 변호사니까 서민적이진 않더라구, 우리가 봤을 때. 깨끗한 하얀 와이셔스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있는데 깨끗한 그 사무실에서.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, 요즘 사람들 이야기하면 서민 변호사 워 서민적인 대통령 워 서민적인 삶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그 팔십칠(87)년의 노동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서민적이지 않았어요.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.

황선엽 : 우리가 억수로 위축돼서(웃음)

류해춘 : 몸도 마음도 워 경제적인 모든 거 해가지고 많이 위축돼있었고. 그러니까 그 변호사 사무실 가는 것도 조금 뭐 이 뭐랄까요?

황선엽 : 긴장을 하고

류해춘 : 관리자들과 싸울 때는 진짜 겁이 안 나는데 그런 데 가면 조금 긴장도 되고. 그때 인제 하여튼 부드럽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‘우리 한 개씩

1) 창원 공단 내의 대규모 중공업 사업장인 통일중공업 노조는 1985년에 문성현, 박수철 등에 의해 설립되었다. 이후 통일노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기 동안 창원공단 내 투쟁을 선도하였고 극심한 해고와 구속 사태 등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87년 12월 14일 창립되는 마창노련의 중추로서 90년대 영남지역 노동운동의 선봉에 있었다. 김하경, <내사랑 마창노련>, 갈무리, 1999, 참고

2) 1985년 통일중공업 노조 설립 당시 초대 위원장에 선출됐고 이후 5차례 구속된다. 1985년 6월 첫 번째 구속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.

3) 문재인 변호사를 말함.

풀어가 봅시다’ 하고 그런 얘기하시고 그랬어요. 그때는 어 거(거기)가면서 문 변호사님하고는 한 번씩 이렇게 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런 거 봤어요. 팔십칠(87)년 초에 이제 그리 봤었죠. 그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지역적으로 마산, 창원 쪽에서는 변호사들이 어떤 노동자들의 변호를 맡아 줄 만한 분이 안 계셨고, 그 당시. 쉽게 말해 돈만 주면 되는 변호사는 많지마는 무료변론 내지는 어떤, 어떤 생각을 갖고 변론을 해줄 만한 사람들이 없었던, 전무했던 시기고.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막 이쪽 노동운동 쪽에서는 노무현 변호사가 아 좀 유명세를 슬슬 타기 시작하는 그때였죠.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부산으로까지 가서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하고 그래 왔던. 팔십칠(87)년 이후에는 이제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지마는 팔십칠(87)년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몇 건이 없었죠. 그니까 문성현씨 그 재판을 도와주고 그런 한 두건 정도 있었고 마산, 창원 쪽엔 그런 큰 사건이 별로 없었고.

유수중 : 일단은 그런 변호사들이 전혀 없었고.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 투쟁 자체가 어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정당한 운동으로 인식이 안됐었죠. 그때 학생운동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인 이렇게 조명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아도 노동자 투쟁은 그냥 그냥 무슨 좀 떼쓰는 것 같다, 라는 형태로 넘어가버리고, 묻히고 그런 식이었죠. 그러니까 어떤 값어치가 전혀 없었다 봐야죠, 그 당시로서는.

류해춘 : 뭐 조금 소요가 일어나면 폭력사건 정도로 치부되고 그래 그런 정도였죠.

유수중 :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 투쟁이 그냥 그 일반 어떤 사회적인 이슈화가 안 되고 그냥 묻히고 묻히고 하는데 그 형태, 수준의 이야기들이, 그 이야기들을 변론해주는 사람이 있구나. 그래,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했죠. 이 지역에도 그런 사람도 있구나. 이제 그 당시 신문지상에서 보면은 뭐 서울 쪽에 학생운동권에는 좀 많이 있었잖아요? 이렇게 변호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그 변호인단 꾸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. 근데 노동자들은 전혀 없었으니까. ‘아, 이 지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’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신선하고 굉장히 고맙게 다가왔죠.

임수관 : 제가 팔십팔(88)년도 석방돼 나왔을 때, 참 교도소 안이 편했었어요. 나와 있는 것보다. 아 진짜 힘들었어, 그때는. 돈도 없고 뭐 그래도 오라카는 데는 오만 데 이 마산, 창원 지역에 투쟁사업장은 다 돌아다녔어요. 거의 그냥. 지원. 그냥 뭐 심지어는 노동 파업현장에 가, 여성 파업현장에 가가지고 책상 하나를 들어줘도 우리가 가서 다 들어줘야 되지 뭐. 그

러다가 이제 막 구속자 석방, 해고자 복직, 구속자 석방 그 인제 슬로건을 걸고 인자 백찬기 국회의원 사무실을 인제 점거를 한다구요, 그 당시에. 그때 이제 이 경남 마산, 창원 지역 해고자들이 중심이 돼서 점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제 통일(중공업) 해고자들인데. (중심이) 돼가 해가지고. 그 당시 백찬기 국회의원은 이제 야당 국회의원인데 김영삼계 야당 국회의원.

류해춘 : 통일민주당인가?

임수관 : 예. 그 점거를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저는. 일과시간이 끝나면 전 마산, 창원 지역 노동자들의 집결장소가 된 거예요, 이제. 노동조합 활동하는 사람들이. 야 참 많이 왔었어요, 그때는. 그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도로를 막아버리는 거죠. 이쪽하고, 이쪽하고 이제 막아버리고 중간에 쪽 있는데. 그래도 뭐 어떻게 들어와도 계속 들어왔어요. 그래가 마 우리가 십(10), 나도 단식을 교도소에서 단식을 해봤지만 나와가 단식을 더 오래, 십삼(13)일 했다니까. 그때 거기서 단식을 갖다가. 나가가지고. 그때는 담배도 피웠는데. 그래 그때 이자 노동통령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 강삼재 뭐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이 지역으로부터 해가지고 많이 내려왔어요. 많이 내려와가 낮에 와가지고 이래 막 가고 그랬는데. 그때 노무현이란 변호사⁴⁾가 안 왔어요. 낮에는. 안 와가지고 그래 밤에, 밤에 그때 그 조금 늦었어요. 그냥 초저녁도 아니고 깊은 밤이었을 거야. 좀 늦었을 거야.

그래 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 보좌관 한명 데리고 왔었어요. 까만 비니루 봉다리 이래 하나 들고. 그때 내 기억에는 통닭 두 마리고, 통닭 두 마리는 정확한데 소주가 몇 개 있었지, 두 병인지 좌우간 사들고 왔었어요. 왔는 것 같애요. 아 그래가, 아마 그래서 맞을 거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로 계속 (그)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요. 그래가 막 이제 밤늦게 우리도 소주, 인제 농성장이지만 밤늦게 몰래 소주도 한잔하고 이래 있는데 등장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, 우리가. 가뜰이나 술도 좀 먹었겠다. 그래 막 여(기)서도 질문하고 저(기)서도 질문하고 계속했어요. 그러다 또 얘기 또 하고. 또 반복된 질문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. 그러니 그래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한참 얘기를 질문을 하고 막 이러니까,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도 막 이래하고 하니깐 그 양반이 다른 대답하는 것도 하면서 ‘자 인제 나 좀 집에 좀 보내주세요

4) 당시는 초선의원이었음.

요. 예? 나 진짜 마누라 보고 싶어요. 집에 가고 싶어요. 나 좀 보내주세요’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. 참 요즘 생각하니까 그 당시 그런 추억이랄까 그런 생각들이, 참 대단하셨다…. (그때 당시) 아 엄청 가깝게 느껴지던데요. 우리, 우리 편이죠 뭐. 우리 편. 엄청 가깝게 느껴지지. 그래도 국회의원들도 그놈아들 오만 국회의원들 다 와도 그랬는데 이 양반은 그런 어떤 가식적이라든가 이런 그런 게 없었잖아요. 그냥 그대로 뭐 얘기도 그대로 다 하고 표현도 그대로 했으니까.

■ 구술자 주요이력

임수관 / 전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부위원장

1986년도에 통일중공업에 입사했다.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수차례 구속과 석방을 오가며 오랜 해고자 시절을 견뎠다.

유수중 / 전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사무국장

1984년도에 통일중공업에 입사해 1988년 2차 지도부 시기 사무국장을 역임했다.

류해춘 / 전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

1984년도에 통일중공업에 병역특례병으로 입사, 87년 2월 특례기간 중에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으로 해고되었다. 해고무효소송 건으로 노무현 변호사와 만났다. 87년 8월 이석규 열사 장례식 관련하여 변호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구속 상태이던 자신을 직접 찾아와 ‘변론을 계속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’ 던 노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다.

황선엽 / 전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부위원장

1985년도에 통일중공업에 입사했다.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 동안 구속자 석방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서울 민주당사 점거농성에 참가하면서 첫 구속되었고 이후 복직하여 통일중공업 노동조합 부위원장에 선출되었다.